

구리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따스한 사랑의 물품 나눔

김동환 기자 | 승인 2023.12.22 16:46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회장 장수용)는 22일 장애인복지시설인 한나의 집(사노동 소재)을 방문하여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22일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는 구리시 관내에 전문성 있는 각계각층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지역적 특성 반영과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소방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장수용 자문위원회장 등 4명이 참석하여 한나의 집에 라면, 휴지, 세제 등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고충 등을 청취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장수용 소방정책자문위원회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시설 내에 소방시설을 항상 정밀히 관리하여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